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보고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외부(서산시) 요청으로 참석한 국외출장 건임에 따라 출장의 일부 내용이나 연구자 의견, 또는 포함된 주요 자료가 요청기관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가 필요함		
출장목적	• 2024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시찰단, 선상세미나, 기항 시스템 점검 참석 ① 시찰단 참가: 국제크루즈선 부대시설 등 운영체계 점검 ② 선상세미나 참가: 주제발표(충남 크루즈 발전 전략) 및 토론 참여 ③ 기항지 관광 시찰: 기항지 크루즈 터미널 CIQ 수속 절차 및 기항 관광 시스템 점검			
출장기간	2024. 05. 08. ~ 2024. 05. 14. (6박 7일)			
출 장 국	일본(오кина와, 미야코지마), 대만(기륭)			
출 장 자	성명	소속	직급	역할
	한석호	경제산업연구실	초빙책임연구원	시찰단, 선상세미나, 기항지 점검 등 전체 행사 참석

2. 출장내용

○ 2024. 5. 8.

- (1일차) 서산 대산항 및 크루즈 내부 시설 점검

- 서산 대산항 출항일에 맞춰 대산항 여객 터미널 내부 시설과 CIQ(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시설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함
- 입국객과 출국객의 이용 통로가 한 곳뿐임에 따라 입국 수속이 끝나는 시간까지 보안요원 등이 출국객의 내부 출입을 통제함. 이에 출국객의 편의시설 이용 등에 불편으로 초래하였으며 향후 우천 및 계절 상황에 따라 불편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이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보완이 필요함.


구분	내용
서산 대산항 내부 및 CIQ 시스템	 

<p>서산 대산항 화물 검역 시스템</p>	
<p>크루즈선 내외관 및 부대시설</p>	

○ 2024. 5. 9.

- (2일차) 서산시 주최 선상 세미나 참석





- 충남 서산시는 5월 9일 코스타세레나호 5층 루나라운지에서 ‘서산 국제 크루즈 선상 세미나’를 개최함
- 세미나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충청남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서산시의회, 롯데관광, 코스타 등 관계자와 크루즈 전문가, 승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함
- 세미나는 기조발표,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조발표는 이완섭 서산시장이 ‘사통팔달 국제 크루즈 도시, 서산 서해를 깨우다’를 주제로 진행됨
- 주제발표는 KMI 황진희 박사가 ‘크루즈 산업 육성 필요성과 정책과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박사가 ‘크루즈 관광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함
- 본 연구원은 ‘충남 크루즈 발전전략’을 주제로 서산 대산항 크루즈 제반여건 분석, 서산 대산항 주변 관광 환경, 충남 크루즈 관광의 장단점 및 충남 크루즈 관광 발전 방향 제안에 관해 발표함
- 주제발표 이후 약 20여분 간 선사 관계자 및 여행사 관계자 등과 종합토론을 진행함

구분	내용
서산 국제 크루즈 선상 세미나 참석	   

○ 2024. 5. 10.

- (3일차) 일본 나하(Naha) 크루즈 터미널 및 기항지 점검





- Naha Port의 크루즈 터미널 내·외부 시설을 점검함. 승하선을 위한 갠웨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며, 터미널 내부에 개별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와 외국인 대응 인력이, 외부에 단체버스 승하차 장소가 별도로 있어 이동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

구분	내용
Naha Port	   

○ 2024. 5. 11.

- (4일차) 일본 미야코지마(Hirara) 크루즈 터미널 및 기항지 점검

- Hirara Port는 크루즈 정박지에서 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크루즈 승객의 하선과 재승선 시간까지 지속해 운행함
- 비교적 협소한 터미널과 달리 CIQ 시설을 돔 형식의 간이형 건물로 지어 쾌적함을 높이고 내부 이동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개별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와 외국인 대응 인력이 있으며, 협소한 장소로 인해 정기 버스 노선보다는 터미널 외부에 택시 승강장을 마련해 개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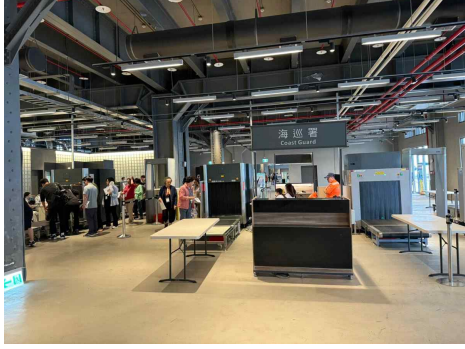


구분	내용	
Hirara Port	 	 

○ 2024. 5. 12.

- (5일차) 대만 기룽(Keelung) 크루즈 터미널 및 기항지 점검

- 기룽항은 대만의 대표적인 크루즈 교통 허브임. 높은 산지 비율과 낮은 평지 비율이 크루즈선 접안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나 지속적 확장과 개선 공사를 통해 14만톤급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하며, 크루즈 선석도 총 9,000m 길이에 3개를 보유하고 있음
-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 크루즈 여행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루즈 터미널의 경우 1시간당 약 2,000명(내국인 1,200명, 외국인 800명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이를 위해 총 10개의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국 심사가 진행되는 지점에 토산품 및 기념품점을 위치해 승객들이 출국을 기다리며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가 끝나는 지점에 면세점이 위치하고 있어 쇼핑 환경이 우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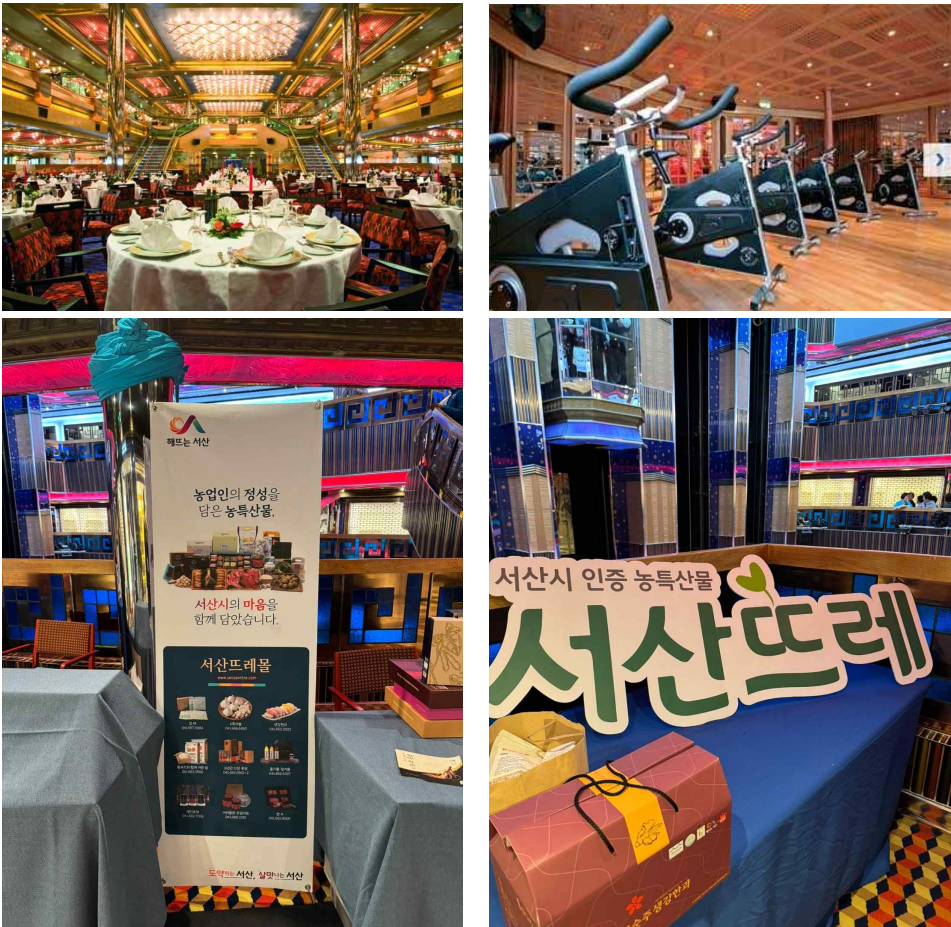
- 그 밖에 하선 시 방역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재승선 시에도 빠른 CIQ가 가능하도록 다국어 안내를 지원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아시아권역 크루즈 선을 지속해 유치하고 있으며 대만의 대표적인 모항 및 기항지로서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음

구분	내용
Keelung Port	       

○ 2024. 5. 13.

- (6일차) 선상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 점검

- 크루즈 승객들의 선상 프로그램과 지역(서산시)에서 준비한 특산품 홍보 매장을 점검함. 매일 아침 선상 신문이 각 객실로 전달되며 승객들은 매일 선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 교육, 행사 및 페스티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음. 해당 크루즈 여행의 경우 대부분 한국인이 탑승하는 전세선임을 감안하여 선사 및 여행사(롯데관광)에서 한국어로 된 선상 신문을 배포함
- 그 밖에 중앙 홀(hall)에는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준비한 서산 특산품 홍보 부스가 마련됨. 농축식품물의 직접적인 선적과 판매가 불가능하여 홍보용 부스만 설치하였으나 향후에는 선내에서 주문하고 하선 후 수령 또는 택배로 보내는 등의 서비스가 마련된다면 지역상품 판매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구분	내용
On the cruise	

3. 과제(연구) 반영 및 시사점

○ 현장 경험을 통한 실질적 이해 증진

- 서산 대산항 모항 크루즈 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 출항 준비, 출항 및 운영 등에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함. 특히, 승객 경험 및 크루즈가 기항하는 각 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시찰함으로써 향후 충청권 크루즈 모항/기항지로서 갖춰야 할 준비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음
- 이를 통해 연구자 전략과제인 ‘서산 대산항 크루즈관광 육성’ 방안에 필요한 보다 실제적인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 및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출항식, 내빈 쉽투어, 선상 세미나 참석 등은 서산 대산항에서의 크루즈 운영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크루즈항 비교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기회

-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基隆 등 기항지 관광 및 시찰을 통해, 서산 대산항과 비교하여 이들 지역이 어떻게 크루즈 관광을 유치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음
- 특히,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기항지 서비스, 관광 상품 개발, 지역 경제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탐색하였으며, 각 지역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서산 대산항이 국제적인 크루즈 관광 목적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함

○ 네트워킹 및 협력 기회 확대

- 선상 세미나, 기항지 시찰 등으로 크루즈 관련 전문가, 정책 실무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킹함으로써 향후 연구 협력, 정보 공유, 실무적 조언을 위한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향후 서산 대산항을 비롯한 충남도 내 크루즈관광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함
- 뿐만 아니라 (사)한국크루즈포럼 등 국내 주요 크루즈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미래 크루즈전략 육성 공동 방안 등의 모색 활로를 구축함